

뉴욕증시 - 애플 등 기술주 불안 ...다우 0.33% 하락 마감

1. 美 연준의 경제 자신감 약화,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 지속
2. 브렉시트 우려 지속 ...투표일 연기 가능성 vs 반대표 집결
* IMF 총재 "브렉시트 결정 시 불리"
3. 블라드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연준 2018년까지 한 차례 이상 인상"
4. 애플, 중국에서 특허 침해 혐의 소송으로 아이폰6 판매 중단 위기에 2.3% 하락
5. 美-5월 주택착공(MoM) 4.9% → -0.3%
-5월 건축허가(MoM) 4.9% → 0.7%
6. 유럽증시, 브렉시트 공포 ↓ 증시 대폭 반등
...은행주, 일제히 급등하며 상승세 주도 & 국제 유가 반등 호재

국제 증시			국제 상품		
DOW30	17675.16	(-0.33%)	WTI	47.98	(+3.8%)
NASDAQ	4800.34	(-0.92%)	COMEX금	1294.80	(-0.3%)
S&P500	2071.22	(-0.33%)	COMEX구리	2.0510	(+1.01%)
KOSPI	1953.40	(+0.07%)	주요국가 10y국채		
KOSDAQ	678.86	(-0.20%)	한국	1.596%	(+1.7bp)
국제 통화			미국	1.61%	(+2.9bp)
유로/달러	1.1276	(+0.0053)	영국	1.14%	(+3.5bp)
유로/엔	117.43	(+0.36)	독일	0.02%	(+4.3bp)
달러/엔	104.19	(-0.05)	프랑스	0.42%	(+2.6bp)
달러/위안	6.5795	(+0.0056)	이탈리아	1.51%	(-3.0bp)
원/달러	1172.70	전일 1171.40	스페인	1.55%	(-4.2bp)
NDF	1170.50 / 1171.50원	2.40원 하락	그리스	7.94%	(-12.5bp)

주간 예정 지표				
국가/날짜		경제지표	Previous	Forecast
6월 20일				
독일	-5월	PPI (MoM)	0.1%	0.3%
일본	-5월	무역수지	824B	40B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6월 21일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독일	-6월	ZEW경기신뢰지수	6.4	3.0
6월 22일				
미국	-5월	잠정주택판매 (MoM)	1.7%	1.1%
	-4월	주택가격지수 (MoM)	0.7%	0.6%
6월 23일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77K	271K
	-5월	신규주택판매 (MoM)	16.6%	-8.0%
	-6월	제조업PMI	50.7	50.8
	-5월	CB선행지수 (MoM)	0.6%	0.1%
유로존	-6월	Markit종합PMI	53.1	53.0
	-6월	제조업PMI	51.5	51.4
	-6월	서비스PMI	53.3	53.1

독일	-6월 종합PMI	54.5	54.2
	-6월 제조업PMI	52.1	52.0
	-6월 서비스PMI	55.2	55.0
6월 24일			
미국	-6월 미시간대소비자신뢰지수	94.3	94.0
	-5월 내구재주문 (MoM)	3.4%	-0.5%
	-5월 근원내구재주문 (MoM)	0.5%	0.2%
독일	-6월 Ifo기업환경지수	107.7	107.5

1. 전일 장중 동향

*KTB: 시가 110.65 / 종가 110.66

*LKT: 시가 131.50 / 종가 131.47

1) 17일 국고채 금리는 상승 마감. 브렉시트 반대를 지지하던 영국 조 콕스 하원의원이 총격으로 피살됨에 따라 23일 예정되어 있던 브렉시트 투표가 연기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심리에 채권 시장은 조정을 받음. 또한 11시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살 테러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외신발 루머가 퍼지며 더욱 약세를 보였으나 이내 시장은 회복, 미미한 반응을 보임. 이후 좁은 구간 등락을 반복하며 큰 변동없이 장 종료. 미국 WSJ에 따르면 콕스 의원의 피습을 시장은 브렉시트 우려의 완화로 해석하며, 그동안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소폭 되돌림.

2) IRS 금리는 브렉시트 우려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전구간 0.75-2.5bp 상승. 장중 한때 김정은 국방 위원장의 사망 루머에 따라 잠시 시장이 멈추는 해프닝도 있었으나, 이내 정부에서 시장 진정에 나서며 좁은 변동폭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짐. 몇일째 이루어진 강세장에 대한 레벨을 소폭 반납하였으며, 이후 브렉시트 사태의 변화를 지켜보는 관망세가 이루어질 것.

3) CRS 금리는 보험권에서 마감. CRS 시장 역시 대외 이벤트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자는 심리에 레벨의 큰 변동은 없었음. 향후 브렉시트 투표의 연기 여부, 연기 기간, 월말 장기투자자 수급이슈 등을 기다리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국내 주요 금리			BOND SWAP SPREAD		
3y	1.334%	(+1.6bp)	3y	-4.7bp	(+0.4bp)
5y	1.402%	(+1.9bp)	5y	-8.7bp	(+0.6bp)
10y	1.596%	(+1.7bp)	10y	-18.6bp	(+0.3bp)
CD	1.390%	(0)			

IRS OUTRIGHT			IRS SPREAD		
1Y	1.3225%	(+1.5bp)	1*2Y	-3.25	(+0.5bp)
2Y	1.2900%	(+2.0bp)	2*3Y	0.00	(+0.25bp)
3Y	1.2900%	(+2.25bp)	2*5Y	2.25	(+0.25bp)
5Y	1.3125%	(+2.25bp)	3*5Y	2.25	(0)
7Y	1.3525%	(+2.25bp)	5*7Y	4.00	(0)
10Y	1.4125%	(+2.25bp)	5*10Y	10.00	(0)

